

환자의 입장에서 본 암진단의 통보

기정의 윤영호

서론

암의 진단을 환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의사에게 어려운 과제이며 환자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인 일이다. 또한 치료과정에서 의사와 환자와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감정상태와 기능수행능력을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의사들은 암의 진단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아 환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경험적인 지침서가 없는 상태에서 주로 개인적인 경험이나 동료, 혹은 스승의 의견에 의지해야만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암환자들의 직접면담을 통한 암환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분석해 보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넓은 견해를 얻는데 가치가 있을 것이다.

방법

1992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며 진단받은지 한달이 지나고, 병석에 있는 40명의 암환자가 면담을 하였다.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어떻게 진단을 알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환자의 반응과 향후 암진단의 통보에 관한 환자들의 의견을 녹음하여 정리하였다.

결과

대상환자 40명중 18명이 의사를 통해서, 12명이 보호자를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8명이 우연히 알게 되었으며 57.5%는 병실에서 알게 되었으며 28명이 진단 직후 혹은 치료 시작 전에, 12명이 치료 시작 후에 알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진단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걱정되었던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가족들에 미칠 영향”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39명중 18명(46.2%)으로 가장 많았다. “환자분께서는 진단을 알게 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진단명을 알게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

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응답자 39명중 36명으로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환자에게 암의 진단을 통보하는데 대한 질문에 대상환자 40명중 35명(87.5%)이 찬성하였으며 찬성하는 이유는 “환자가 알아야 치료에 협조하고 주의한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35명중 19명(5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생이 잔무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준비한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10명(28.6%)으로 두번째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을 통보할 때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 것’으로는 대답한 환자 38명중 환자를 안심시키고 희망을 준다(18명, 47.4%)가 가장 많았고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예후, 합병증에 관해 보다 자세히 알려준다(8명, 21.1%),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감이 중요하다(6명, 15.8%), 환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중요하다(6명, 15.8%) 등을 들었다.

표 I 향후 암진단의 통보여부 및 방법(N=40)

질문	환자 수
암의 진단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까?	
찬성	35명 (87.5%)
상황에 따라서	5명 (12.5%)
반대	0명 (0%)
누가 알리는 것이 좋습니까?	
의사	32명 (80.0%)
보호자	8명 (20.0%)
기타	0명 (0.0%)
누구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까?	
환자	9명 (22.5%)
보호자	25명 (62.5%)
동시에	6명 (15.0%)
언제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진단 직후	24명 (60.0%)
치료 시작전	10명 (25.0%)
치료 중	5명 (12.5%)
치료 후	1명 (2.5%)
어떤 절차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까?	
진단즉시 모두	17명 (42.5%)
몇단계로 나누어서 서서히	14명 (35.0%)
기회를 보아서 한번에	9명 (22.5%)

또한 (표 I)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암의 진단을 환자에게 알려야 하는데에 찬성하는 사람이 35명으로 8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보하는 사람으로는 의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암진단의 통보는 진단 직후(60.0%), 환자보다는 보호자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좋은 것으로 의견을 표명하였다.

고찰

이 연구에서 환자들은 의사가 진단 직후 혹은 치료 시작 전에 환자를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면서 암의 진단을 통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단통보순서 및 방법, 진단통보시 가장 걱정되는 점에서 서양과 달리 가족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서양과의 문화적 차이로 가족간의 감정적 끈이 긴밀하고 가족적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이며 가족이 완충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암의 치료에 환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가족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상의하여 환자에게 따뜻한 배려와 함께 희망적으로 진실을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외국 호스피스 기관 교육안내

- **THE FIRST NATIONAL CONFERENCE ON CLINICAL HOSPICE CARE / PALLIATIVE MEDICINE**
 기간 : FEBRUARY 20-23, 1994
 장소 : THE SAN FRANCISCO HILTON AND TOWERS, SAN FRANCISCO, CALIFORNIA
 문의 : NHO CONFERENCE ON CLINICAL HOSPICE CARE / PALLIATIVE CARE, 1901 N. MOORE ST. STE 901, ARLINGTON, VA. 22209
 전화 : (703) 243-5900 FAX(703) 525-5762
- **HOSPICE & PALLIATIVE CARE STUDY SEMINAR IN BRITAIN AT KING'S FUND COLLEGE, LONDON, ENGLAND**
 기간 : APRIL 10-22, 1994
 비용 : US \$ 1,630.00 (숙박료 포함 안됨)
 문의 : HOSPICE EDUCATION INSTITUTE, 190 WESTBROOK ROAD, ESSEX, CONNECTICUT 06426, U.S.A.
 전화 : (203) 767-1620 FAX : (203) 767-2746
- **ST. CHRISTOPHER'S HOSPICE** 연수
 문의 : THE HOSPICE INFORMATION SERVICE, ST. CHRISTOPHER'S HOSPICE, 51-59 LAWRIE PARK ROAD, LONDON, SE 26 6 DZ ENGLAND
 전화 : 081 778 9252 FAX : 081 659 8680
- **ON COURSES HELD BY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PALLIATIVE CARE**
 문의 : MS. HEIDL BLUHMLLBER, EXECUTIVE OFFICER, EUROPEAN ASSOCIATION FOR PALLIATIVE CARE, VIA VENEZIAN 1 20133 MILAN ITALY
 전화 : 39-2-2390 / 243 FAX : 39-2-70600462
- **그외 호스피스 정보 구입처**
 문의 : CANCER CONTROL PROGRAMMER, WORLD HEALTH ORGANIZATION, 1211 GENEVA 27 SWITZERLAND